

與 “민생 의지 적극 반영” 野 “불통·독선·오기 재확인”

尹 국정브리핑 놓고 온도차 극명

국힘 “핵심 개혁과제 소상히 설명”
민주 “국민 불안·고통에 사과 없어”
조국당 “자화자찬 일관… 전파낭비”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높이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한자어 국정브리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고, 특히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고 평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시민이 생중계되는 TV를 지켜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살리기에 맞췄다는 점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면서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야권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입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연금개혁 방향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춘평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국회서 회담

모두발언만 공개... 의제 협의 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 배석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첫 공식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비서실장은 29일 의원 연찬회 장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대표 모두발언까지만 생중계되며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대표 회담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30일 비서실장 등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비서실장은 “회담이 어려운 민생과

답보 상태인 정치를 풀어나가는데 급급적 풍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실무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느냐’고 묻자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협과 대화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담 생중계와 관련된 질문에는 “민생 해결을 위한 대표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당과 한 대표가 생중계 건은 다소 양보했다”며 “모두발언을 몇분간 할 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기정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광주 실현”

‘재활용 업, 쓰레기 다운’ 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과 일명 ‘쓰레기덕후’로 불리는 자원순환해설사들이 ‘자원순환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뭉쳤다.

광주시는 29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 업, 쓰레기 다운(DOWN) 광주’를 위한 찾아가는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자원순환해설사 등 주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선도적인 자원순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

한 자리였다.

‘쓰레기, 더이상 묻지 말고 바꿔쓰자’를 주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선도적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 원천 감량 필요성, 에너지·자원 등을 다시 쓰기 위한 재이용·재활용·재제조 산업 지원책, 자원회수시설 등 지속가능한 처리 등이 논의됐다.

또 △일회용품 보증금제 △제로웨이스트 카페 지원 △제주도 클린하우스와 같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마을축제·행사 등에 대화용품 지원 확대 등도 제안됐다.

노병기 기자

양부남, 84억 재산 신고 ‘민주당 내 1위’

22대 국회 신규등록자 재산신고 국힘 고동진, 333억원 ‘전체 1위’

22대 국회에 입성해 새로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47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사장을 지낸 양부남(사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국회공보에 게재한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이 333억1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재직 당시 ‘갤럭시 신화’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고 의원에 이어 재산 2위·5위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했다. 서명욱 의원이 270억7966만원을, 김은혜 의원이 268억8469만원을, 한지아 의원이 110억



7175만원을, 최은석 의원이 110억165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욱·한지아 의원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신규 등록 147인 중 6위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재산 1위는 84억3365만원을 신고한 양부남 의원이었다. 검사 출신의 양 의원은 광주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8억3458만원을 신고한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어 정준호(민주당, -5억8808만원)·한창민(사회민주당, -1억5872만원)·차지호(민주당, -3805만원)·모경중(민주당, -1061만원) 의원 등도 마이너스(-)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립순천대 글로벌 지산학 고흥캠퍼스 개소

그린스마트팜 분야 인재 양성 김영록 “혁신 거점 도약 지원”

지난해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국립순천대가 29일 그린스마트팜 분야 기초·실무 교육을 위한 지·산·학 고흥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캠퍼스 구축 총사업비는 186억원으로 △정주형 청년인재 양성(500명) △지산학협동교육(250명)을 목표로 스마트팜 실증농장 및 빅데이터센터 자료

활용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 자리잡은 고흥캠퍼스는 강의실 2개, 실증농장 3개, 교수실 1개, 행정실 1개를 갖췄다. 특히 스마트팜·컨테이너팜 실습장, 식물 수직농장 시스템, 환경제어 시뮬레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자재 구축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주기적 밸류체인 맞춤형 인력 양성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스마트팜 추진방향에 맞춰 원예·축산 분야 연구개발과 정주형 청년창업농 육성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전남도, 쌀 수출 마케팅·판촉 지원... 1100톤 목표

전남도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피해를 예방하고, 전남 쌀 해외 소비를 촉진시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00톤 수출을 목표로 마케팅 및 판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소재하고, 전남산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RPC·농협·조공법인 등)와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사인 수입업체다.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재 및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1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우주농업센터 건립, 우주 극한환경 작물재배 연구, 국제축산학과 개설 등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병은 국립순천대 총장,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국립순천대에 2027년까지 500억원을 지원, 3대 특화 분야인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지·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해외 상설 판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할 경우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 하면 되며,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돼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